시

영광 빛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여

류드밀라 아브제예바

괴로움과 즐거움이 엇갈려진
조선의 력사
자유와 해방을 위한 길에 피도 많이 흘렸거니
쏟은 눈물 또 얼마였더냐

침략자들과의 대결전에서
언제한번 무릎 꿇어본적 없는 조선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빛나는 승리만을 떨쳐왔어라

김일성동지의 령도아래
1945년 8월 15일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조선인민
일제의 무서운 압박을 부시고 찾은 땅에
1948년 9월 9일 진정한 인민의 나라 세웠어라

자유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여
평등과 화목이 차넘치는 나라여
너는 사랑과 친선을
천부적재부로 안고 태여났어라

갓 창건된 이 나라에 재난이 들이닥쳤어라
조선을 먹으려고 미제가 전쟁의 불 질렀거니
허나 조선인민은 침략자 미제를 타승하였어라
위대한 전략가, 위대한 천재 **김일성**동지 계셨기에

김일성동지의 념원은 꽃펴났어라
김정일동지 수령의 위업 빛나게 계승하시였어라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한
조선인민은 일심단결되였어라

정의와 행복을 위하여
수호의 보검을 억세게 벼리신 **김정일**동지
줄기차게, 힘차게, 현명하게
나라를 이끄시였어라

군대의 총검은 인민에게 평화를 가져다준다
아이들의 운명, 강국의 운명은 총대로 지켜진다
이는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지론
위대한 수령들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김정은 그이의 억센 손길은
사회주의의 리상을 아름답게 꽃피우네
바로 이것은 영예이며 용감성
선대수령들에 대한 그이의 숭고한 의리여라

그이의 령도아래 군대와 인민은 고수해간다
자기의 찬란한 문화의 전통 독특하고 훌륭한 예술을
억센 바위와도 같은 나라 조선은
신념과 현명성, 화목이 넘치는 나라이여라

선렬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간직한 인민들
영웅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있어라
자기의 사상과 정신, 지혜를 굳게 믿는 이들
로씨야에 대한 친선의 정도 소중히 간직하고있어라

키높은 살림집들이 일떠선다
선진과학은 발전한다
공장들이 들끓고 전야가 무르익어간다
사람들은 자유를 마음껏 누리여라

평등과 화목, 사랑과 정의의 세계는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살아있어라
목란꽃 피는 대지에 백로 날아예는 하늘가에
태양은 눈부시다

군대와 인민은 단결되고
주체의 사상으로 굳건한 자유의 나라
위대한 령장을 모신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이여 영광 빛나라

(로씨야작가동맹 성원임)